

간화선-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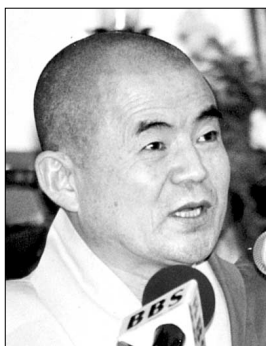


◇제7회 선우논강에서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간화선 교육체계의 발심 부재의 수행풍토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같다·다르다” 망상... 발심이 문제

기조강연 **혜국스님**(전 국선원장회의 회장)

오늘의 논강 주제는 '간화선-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이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는 같다-다르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 간화선에서는 같다-다르다는 분별을 망상으로 볼 뿐 정견으로 보지 않는다. 같다-다르다는 것은 양면(兩邊)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도(中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행과정에 있어 오직 발심(發心)을 문제삼을 뿐, 옳다-그르다 하는 흑백논리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는다. 간화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간화선을 받아들이는 현실과 수행풍토가 문제일 뿐이다. 간화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수좌들과 학자들의 수용상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간화선 수행현실에 대해 경책하고 타마하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 수행풍토가 바르게 자리잡히길 기대한다.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간화선이다. 우리 불교의 저력인 간화선마저 부정한다면 한국불교는 아무 것도 남는게 없다. 좀더 검증과 토론을 거친 후 안으로 성숙되어가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우리의 화두 참선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도인이 나왔다. 세계에 내놓을만한 수승한 참선법은 간화선이다. 발심(發心)이란 것은 '내가' 문제다. 나는 괜찮는데, 남이 문제라는 생

선우논강 지상중계

최근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방불교의 위빠사나와 북방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과의 비교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래의 위빠사나 수행 붐과 간화선 위기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25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선우논강(대표 철오) 주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주제의 논강은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편집자 주)

발제요약 **각목스님**(초기불전연구원)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다섯가지의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절문(徑截門: 가장 빠르고 간명하고 적절한 방법)'이란 공통점이 있다. 두 수행법은 모두 '챙김(마음챙김)을 중시한다. 간화선의 핵심은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 의정을 일으킬 것을 강조한다. 위빠사나 역시 몸, 느낌, 마음, 법 등의 명상주제를 끊임없이 챙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챙김에 바탕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견성(見性)과 해탈(解脫)로 승화되어 귀결되는 점에서

'견성·해탈' 일치...대상은 달라

일치한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오랜 수행기간이 필요하지만 깨달은 순간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돈오'라는 입장에서 공유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의 필수요소인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憤心) 대의정(大疑情)과 위빠사나의 오근(오력(信, 精進, 念, 定, 慧)은 동일하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은 자성정정심과 선지식을 신뢰하는 심리현상(信), 분별하는 심리현상(精進), 화두를 챙기는 심리현상(念), 고요함(定), 분별경계를 뛰어넘는 심리

현상(慧) 등에 해당한다. 또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모두 선정보다 지혜를 중시한다.

간화선에서는 견성의 도구로 화두참구를 들고 있고, 위빠사나에서는 해탈의 방법으로 법(法)을 통찰하라고 가르친다. 여기서 화두는 고정된 대상이고, 법은 변화하는 대상이란 것도 차이점이다. 화두참구는 직관에 근거하고 위빠사나는 분석에 바탕한다. 견성을 주장하는 간화선은 교학을 무시하고, 대신에 선지식의 인가를 중시한다. 한편 해탈을 중시하는 위빠사나는 아비담마(논증)에 대한 정확한 분석지를 중시하며, 인가 대신에 법의 정확한 이해를 강조한다.

간화선 부정하면 한국불교 정체성 붕괴

깨달음은 이해보다 체험으로 얻는것

을 상(相)으로 본다. 한 생각 일어나는 순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18계 전체를 '상'이나 환영으로 보는 것이다.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이 화두다. 아예 딱 막혀 모를 뿐이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어렵다. 그래서 간화선에 애정을 가진 스승들은 노파심으로 제자들의 지도했다.

각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어록이나 경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노릇 잘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간화선에 대한 비판도 그것이 얼마나 애중심에서 나온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진리는 새로 이뤄가게 아니다. 허공이 완전결한 것처럼 진리도 완전하다. 허공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눈뜨면 진리도 바로 내 것이다. 진리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최상승선은 말이 끊어진 자리다.

한 생각 일어나는 즉시 대상이 망념임을 알아차려 본래 공임을 보며, 나아가 보는 눈까지 바로 없어지는 단계가 견성(見性)이다. 이는 봄이 없이 보는 것이며 무아를 꿰뚫어 볼과 다를 없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을 넘어선, 말없이 끊어진 화두의 세계를 사랑분별의 세계로 끌어내려 게 문제이다. 간화선 자체보다는 발심을 문제 삼아야 한다.

논평 **인경스님**(선상담연구원장)



철학적인 입장에서 위빠사나가 초기불교의 법(法) 중심이라면, 간화선은 대승불교의 성품(性品), 불성(佛性)사상에 기초한다. 양자 모두 무아설(無我說)에 기초하는 것은 같지만 위빠사나가 인무아(人無我)의 입장에 놓여있다면, 간화선은 범무아(法無我)적인 입장을 고수한 점에서 다르다. 무상, 고, 무아라는 위빠사나의 중심된 아비담마의 개념을 대승에서는 방편 가운데 하나로 보지, 그것을 결코 궁극적인 실재라고 보지 않는다. 즉 초기불교의

간화선=범무아, 위빠사나=인무아

무상, 고, 무아는 또 다른 집착이고 관념이며 희로일 뿐이다. 그것들은 연기공에 대한 철저한 자각으로서 범무아에 대한 통찰이 없는 소승의 반야이다. 위빠사나와 간화선에서 반야(般若)라는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 아비담마에서 반야는 사물의 본성으로서 법을 통찰하는 것이라면, 간화선의 반야는 일체의 분별을 초탈한 연기공의 이법을 제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화선은 개별적인 법에 대한 분석이나, 법체계

에 대한 순차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은 개별적인 '자기의 성품(自性)'이 결여된 연기일 뿐이다. 이 연기법은 여러개서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법계이다. 모든 법은 하나로 귀결되며, 각각의 법은 모두 '한 맛(一味相)'으로서, 그 자체로 공성(空性)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위빠사나가 대상을 인정하고 그것과 하나됨을 추구함으로써 번뇌를 극복하려는 입장에 있다면 간화선은 대상관계를 배제하고 견성을 강조한 점, 번뇌 자체를 부정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강의 쟁점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온 선지식 부재와 인가 문제. 각목 스님은 "간화선의 권위의 원천인 인가(점점)해탈 스승이 없는 점이 한국 간화선의 슬픈 현실"이라며 "이는 인가의 법맥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으로 이제 간화선의 권위를 인가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 수좌들은 "한국 불교사에 존재했던 큰스님들의 깨침을 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금강경 결제에 이어 각목 스님이 제기한 간화선의 힌두화 문제도 논쟁을 야기했다. 각목 스님은 "한국 간화선은 불성, 여래장, 참나 등 힌두이즘적 개념인 아트만(자아)이라는 대상

"간화선 최상승수행법" 공감하나 교육체계·수행풍토에 개선여지

"간화선은 힌두이즘적" 받아들일수 없어

을 세우고 그것과 하나되는 수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소수 수좌들의 잘못된 간화선 참구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간화선이 힌두이즘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간화선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행풍토를 세세하게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는 대체로 의

견을 같이했다. 논강의 사회자인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은 "대회 9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좌들이 정진하는 구도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집결된 수행력을 보여준다"며 "교육체계 확립 등 방향성만 잡아주면 한국불교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논강의 막바지는 간화선의 사회적 회향으로 귀결됐다.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은 비폭력 평화운동의 종가인 불교가 세계적인 전경위기에 돌부리고 침묵을 지키는 현실을 꼬집고, "구도심과 보현행은 일치돼야 한다며 간화선의 사회적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산 스님은 한국불교도 서양의 불교처럼 수행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상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 14기 수강생 모집 안내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빠사나(참선)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 닦는 수행입니다. 불교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어려웠 것입니다. 여기 근본 불교학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한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행복은 사과처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과 마음 상태가 결정합니다.

● 21세기는 마음이 화두입니다.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상태는 행복과 불행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 전부를 관장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정보도 다르게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마음을 평화롭고 청정하게 가꾸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자유가 행복입니다.

인식 대상에 집착하고 구속되는 것만큼 불만족은 증가하고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인식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행복 또한 커집니다.

● 선 수행 후 교학 및 실천

먼저 수행한(위빠사나·참선) 뒤에 교학을 익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이래 대승불교에까지 계승된 불

교 교학 철학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오히려 선 교학 후 수행이라는 부파 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깨침의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이 순서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밭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도 헛수고일 따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이를 구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다양성으로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승·소승·밀교 등에 대해서 말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승·소승·밀교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정통 수행법에 기초해 실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장 소	요일 및 시간
서울 지혜선원 (보라매공원)	화요일(오후반) 2시 ~ 4시
	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전 지혜선원 (목원동)	수요일(오후반) 2시 ~ 4시
	수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구 지혜선원 (명덕 로타리)	목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목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부산 다보선원 (근본도량)	금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금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토요일(오후반) 4시 ~ 6시

2003년 3월 16일부터 ~ 6월 22일까지. 주1회 강의 및 수행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빠사나(참선)를 배우고 싶은 사람, 불교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빠사나(참선)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구조·사유체계·철학적 관점

빅쿠 분다빠라
다보선원과 근본불교학교에서 위빠사나(참선)을 지도함

학교본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680
055)331-9118~9 / 011)9557-8730
www.bodh.net
E-mail : Buddhagaya@hotmail.com

대 구 053)255-0442
※ 서울·대전·부산은 학교본부로 직접 하세요.